



어느 대학교수의 이혼이야기

오재호/한국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최 근 어느 대학교수가 이혼법정으로 끝나 왔습니다. 그는 나와는 안면이 있는 친구였 — 고 공교롭게도 3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사유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무슨 이유를 찾아서라도 아내를 구타합니다. 진단서가 무려 열한 장이나 제출되었으니 이혼 당하는 것이야 당연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두 명 다 가출하고 말았어요. 사내자식은 또 괜찮아요. 둘째 애는 계집애예요. 지난 8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보았지만...” 말꼬리를 흐립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특 하면 어머니를 구타하는 광경을 본 아이들이 마침내 가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프린팅’ 또는 ‘학습효과’란 단어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어린 시절에 보고 들은 그대로를 고스란히 익혀둡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시절 그 날 그때 상황과 엇비슷한 해도 뇌가 프린팅 된 대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가령 아버지가 폭력으로 어머니를 제압하는 광경을 보고 자랐다면 거의 틀림없이 그 아버지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나라의 형사정책연구소에서도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마이니찌’ 신문사에서 심리학회와 함께 범죄 청소년들의 실상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범죄자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82%나 됩니다.

아울러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가해본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범죄 청소년들은 무려 78%나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청소년으로 발전한 것은 87%, 가정에서 부모에게 매질을 당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83%나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팡 테리블’이라는 ‘장폭토’의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누나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아우는 독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을 보고 ‘양팡 테리블’이라는 용어는 ‘부모에게 이유 있는 반항을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동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지않은 자녀들보다 168배나 정신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45배나 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위장병에 176배나 더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배우자에게 폭력만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이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폭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나이도, 학력도, 직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폭력에 관한 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는 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연애 도중에 손찌검을 하는 상대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